

성경이 전쟁에 대해 가르치는 바



성경이 전쟁에 대해 가르치는 바

서문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정세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 왔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즐기며 심지어 당연시해 왔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이들이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긴장이 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 테러 행위가 이제 헤드라인과 뉴스 보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광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존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나라와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애국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들과 국민들은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동맹을 맺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 여겨지는 세력 간의 투쟁이 한창입니다. 무장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폭력에 폭력으로 응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투쟁에 동참하라”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자신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많은 중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폭력, 전쟁, 살인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반대하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되는 근거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 소책자가 독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대한 구약의 관점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전쟁과 관련된 용어로 묘사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과 23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 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불결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므로, 그러한 것은 조만간 멸망하게 됩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과 같으시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경이 전쟁에 대해 가르치는 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24; 히브리서 10:31). “보복은 내 것이요, 갚음도 내 것이다.” (신명기 32:35).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의 눈은 너무 순결하사 악을 보실 수 없고, 주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나이다.” (하박국 1:13).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정하신 때에 열국을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출애굽기 20:5; 15:3

주님은 과거 인류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도 이같이 행하셨으며, 장차 정하신 기한에 이르러 그 계획과 뜻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애정과 확신, 그리고 신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위한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질투는 의로우시며 죄인에게 반드시 공정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한 정죄에서 비롯된 쓴맛, 원한, 그리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스라엘의 전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신 일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군대 단위로 인구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온 지 이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그들의 족속과 가문별로 조사하여, 모든 남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기록하라. 너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그 부대별로 계수할지니라.’ - 민수기 1:1-3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종종 전쟁의 지도자들에게 이끌렸다. “군대의 장수”(여호수아 5:14)인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어떻게 파괴할지에 대해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철저히 파괴되었다.” (여호수아 6:1-21). 삼손의 경험도 살펴보라. 율법에 따르면, 삼손은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받았다. 그의 신실함은 신성한 요구 사항과 하나님의 대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이 전쟁에 대해 가르치는 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과 협력하여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하고 모든 적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나의 손을 전쟁을 위해, 나의 손가락을 전투를 위해 훈련시키시나이다. 나의 인자하심과 나의 요새, 나의 높은 망대와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와 내가 피난처로 삼는 분이시니, 그분은 내 백성을 내 아래로 복종시키시나이다.” 시편 144:1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에게 싸우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나의 손을 전쟁을 위해 단련하시고, 나의 손가락을 전투를 위해 단련하시나이다.” (시편 144:1). 그분은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복수하라. ...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 몇 사람은 무장을 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나가라. ...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내라. ... 그들이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다.” 민수기 31:1-8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의 기병 및 전차 군대에 쫓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오는 것이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집트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다만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 14:10-14).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 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구원받았다.

성경이 전쟁에 대해 가르치는 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전도서 3:1, 3, 8에 있습니다. “천하 만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 살인과 전쟁을 정당화해 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수많은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회적 관점에서 요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게 묻는다. “일꾼들이 수고로 무엇을 얻는가?” 전도서 3:9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말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함과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심판하실 것이니라.” 전도서 12:13,14

사랑의 하나님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신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만을 내가 알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3:2).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약속의 땅에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등은 사실상 야만인들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들은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에 몰두하며 거짓 신들과 종교와 관련하여 인신 제사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과 타락이 그 지경에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공의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당신의 지시에 따라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룰 백성을 그 땅에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율법 체계를 세우시며,

성경이 전쟁에 대해 가르치는 바

불순종할 경우 벌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출애굽기 20:13)는 계명이었습니다. 악의와 증오, 분노는 살인적인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져 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예레미야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라. “허리에 띠를 두르듯,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유다 온 백성을 내게로 묶었노라. 이는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존귀를 위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예레미야 31:1) 그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창세기 28:14)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현재의 악과 증오, 전쟁과 가난의 시기는 일시적인 상황임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전쟁과 증오, 절망과 가난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매우 특별한 방식과 특별한 법칙 및 상황 아래에서 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은 소중히 여겨져야 하며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신약의 관점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다 보면, 곧 변화가 일어났음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르게 대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주님은 하늘의 고향을 떠나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으니,

성경이 전쟁에 대해 가르치는 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를 통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14, 10, 11). 우리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고통의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됨에 따라 그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3

빌라도가 우리 주님의 재판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그들이 모두 그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27:22). 이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읽을 수 있듯이,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이 일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마태복음 27:25

주님의 사역 내내, 그분은 이스라엘을 돕고자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그 날개 아래로 병아리를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고자 하였으나 네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네 집이 황폐하여 네게 버려질 것이니라.” (누가복음 13:34, 35). 이것이 예수님의 증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절한 탓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추구해 온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지속적인 축복과 번영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자는 영을 주시고, 보지 못하게 하는 눈과 듣지 못하게 하는 귀를 주셨으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도다.” 로마서 11:7,8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사례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인용하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의 목적을 다시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다를 건넜으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은, 우리도 그들이 탐내었던 것처럼 악한 것을

탐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1-6).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교훈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기회를 얻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어떤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3). 또한 그들은 약속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영적인 약속의 상속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땅의 모든 족속, 즉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특권을 상속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

사도 베드로의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다”(사도행전 2:39)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며 성취되기를 바라는 약속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7).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나자, 그들은 잘려 나갔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접붙여졌습니다. 이제 개인으로서 이 이방인들은 “감람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17).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만이 영적 씨의 일원으로서 “약속대로 상속자”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3:29).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떠나 열매를 맺을 다른 민족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마태복음 21:42,43).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축복하는 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전형적인 의는 사라졌고, 왕권에 대한 약속도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한 민족”, 곧 영적 이스라엘인 “거룩한 나라, 특별한 백성”에게 주어졌다. (베드로전서 2:9). 우리는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되고 다르며,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모아졌다고 듣습니다. 이 나라에는 종과 자유인이 모두

포함될 것이니, 진실로 주께서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14). 이 점을 더욱 잘 설명해 주는 다음 성경 구절들도 살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마태복음 12:21).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불의를 멀리할지어다.” (디모데후서 2:19).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23).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을 찬양하라.” (베드로전서 2:9).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폭력과 전쟁의 거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에 제시된 가르침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받아들여지던 폭력과 전쟁의 개념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침과 본보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34,35). 이것은 율법 언약 아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높은 계명이며, 더 높은 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율법은 우리 언약의 율법이며 사랑의 율법입니다. 이는 우리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와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 형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지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15). 우리는 사랑이 담긴 순종이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이는 의로움뿐만 아니라 사랑으로도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8:2

우리 주님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참으로 지키는 것이며,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율법의

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바르고, 가능한 한 육신을 절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성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육체의 연약함을 좇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그분께 배우고, 나아가 아버지께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계속 머무르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라.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죄로 인한 폭력이 오늘날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여러 문화권에 걸쳐 있습니다. 죄의 근원인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베드로전서 5:8)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고린도후서 4:4).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폭력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이웃과의 일상적인 문제, 학교나 직장에서의 문제, 심지어 국가

간 분쟁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폭력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무력 사용을 거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51-53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칼을 뽑아 한 사람을 다치게 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의 손에 기꺼이 넘겨져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네 칼을 꽂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힘이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사 군대”를 동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으셨으며, 오히려 그 고난을 자신의 희생의 일부로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빌립보서 2:5

원수에 대한 새로운 태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4)

처음에는 이것이 지키기 힘든 높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옳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려면 속담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이는 원수조차도 우리 마음에 악한 의도를 일으키지 못할 만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보복이나 증오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악이나 불의를 좋아하거나, 그에 가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에 반대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고방식은 자기 구원과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모스 5:15).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는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본보기입니다. 이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2:37).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3:8

삶의 원칙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온유함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마태복음 5:1-12). 우리 주님께서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을, 나아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절제를 실천하고, 온유하며, 쉽게 화내거나 짜증 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타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자비와

진정한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완벽한 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타인을 도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과 공감해야 하며,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결은 평화로운 소망과 타인의 평화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곧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이 사실이며, 의의 원수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의 원칙에 충실하여 그것을 실천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는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조차 그들에게도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마태복음 5:11,12). 또한 베드로전서 4:16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33

신약 성경 가르침의 책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의 찬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영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너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2:9-11). 우리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을 때 이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교훈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이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21).

성경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왕들, 즉 정부에 대한 순종을 한 정도로 포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정부에 대한 충성 서약은 이방인이나 외국인에게 요구되지 않으며, 성경 연구자들은 이를 반대합니다. 이는 그들이 법과 질서에 반대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정부의 규제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더 높은 권위이신 하늘의 주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주님의 말씀과 명령 등은 최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법을 순종해야 하며, 법 아래서 보호를 구할 수는 있으나, 우리 왕을 거스르며 싸우도록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베드로전서 2:13)는 지시를 받았으나,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법이 침해될 때는 예외입니다. 사도 바울은 존경과 존중,

그리고 봉사를 마땅히 받아야 할 이에게 베풀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정의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특히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날의] 불이 각 사람의 일을 시험하여 그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13). 이 “불”은 우리가 생애 동안 어떤 성품을 길러왔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과 은, 보석과 같다고 알려진 하나님의 귀한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다른 재료로 부적절하게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세상의 방법과 전통에 따라 지어진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나라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화가 결코 오래 지속된 적이 없으며, 새로운 갈등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전쟁의 사건들은 인류의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맞이할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세 악한 세상의 상황을 통해 인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9).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주신 특별한 지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2:14)

마치며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폭력과 전쟁이라는 개념을 거부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본보기를 통해,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37-39). 원수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태도는 무력 사용과 살인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사랑과 화해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머지않아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가 전쟁을 그치게 하시리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시편 46:9). 이를 이루는 방법은 미가 4장 3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가 나라를 향해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지상의 모든 사람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회복되고 온전한 땅에서 영원히 화목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전쟁에 대한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에는 확실히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개인적인 연구와 기도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 매우 중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5